

일 주 문



충남도청 봉축 점등법회 정복 예산 수석사 주지 스님은 4월 25일 충남도청 본관 1층 로비에 서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제32회 부산 연꽃문화제 성행 (사)동련 이사장 스님은 5월 7일 오전 10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제32회 부산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상담개발원 교육관 개관법회 도성 불교상담개발원장 스님은 5월 9일 오후 5시 서울 개운사에서 불교상담개발원 교육관 개관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해안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스님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에서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재임명됐다.



공불련 제16차 합동수계법회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6월 4-5일 보은 법주사에서 제24차 성지순례 및 제16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대중화합 위한 산사음악회 대구 자인사, 지역민에 각종 문화공연 선보여

대구 동구 자인사(주지 구룡)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산사음악회를 4월 9일 지모동 벨마트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자인사 주지 구룡 스님은 올해로 3회째 맞는 산사음악회에 대해 "지역민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불교 공동체로, 인재불사의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설명했다. 산사음악회는 비구니 스님 바라춤을 오프닝으로 사물놀이·의식바라춤·활랑무·사다라니축원, 지전도 살풀이 민요와 주민 노래자랑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총회장 연화 스님, 대성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스님,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태성 스님, 대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련 스님, 은혜사 주지 일공 스님, 백안사 주지 성오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신문철 대구지사장**

“시대 요구하는 불교학에 헌신”

Interview 제22대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



불교학계 최초의 학회로 43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학회 회장에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한국불교학회는 4월 22일 서울 불은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총 116명의 성원(위임 포함)을 이룬 가운데 성운 스님을 22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성운 스님은 이 자리에서 “반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며 “불교학계 중 한국불교학회는 종가집이다. 그 위상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성운 스님은 향후 △불교학 연구자들의 학회 참여와 논문 발표 활성화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 및 실천불교학문의 연구 역량 강화 △우수등재학술지 평가에 따른 학계 평판도 및 KCI 인용지수 증대방안 강구 △온라인 논문시스템 구축 △학회원 저변 확대 모색 △신진학자 발굴 △불교학계 증가학회로서 위상 정립 △법인사무체계 확립과 학회운영 효율화 구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불교학회 학회장 임기 동안 우수학술등재지 등록을 위한 준비와 국제학술대회 정기와 추진을 중점 진행한다. 성운 스님은 “미국, 유럽, 동남아 불교

임시총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우수학술등재지 등록에 박차 “불교학 증가로 위상 높일 것”

와 한국불교가 교류·발전하는 학술대회의 정기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교학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 학자들도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 불교학자와 사회 각 분야 학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불교학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사무체계의 확립도 중요과제라고 진단한 스님은 “재정확보를 위한 후원 조직 구축과 사무국을 통한 운영효율화에도 힘쓰겠다”며 “사무국을 두고 운영 효율화를 꾀한다면 다른 학회에도 파급

효과 상당할 것으로 본다. 이런 노력으로 각 지역에 분기학회 등이 구축되면 불교학 전반에 큰 바람이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번 불교학회 학회장 취임에 기해 불교 각계의 불교학 발전을 위한 관심도 호소했다. 스님은 “불교학의 문호를 열고 불교 안팎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절저탁마하는 분위기를 구축하겠다.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43년 역사와 전통에 각인된 한국불교학회의 담대한 원력과 선배학자들의 학문정신이 다시금 발휘될 수 있도록 경주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후학들의 소명”이라며 “불교학이 이시대에 맞는 학문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운 스님은 속리산 법주사로 동진출가하였으며 1961년 수원 용주사서 관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용주사서 타하, 운허 스님에게서 경학 기초를 익힌 스님은 1965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동국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동 대학 일반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사죄고위 과정을 수료했으며 삼천사 주지, 조계종 사회부장, 풍경소리 대표이사, 한국불교학회 부회장, 한국정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구 관음사, 보살계 수계산림 4월 25일, 사부대중 200여 명 동참



송광사 대구분원 관음사(주지 원명)는 4월 25일 경내 무설전 금강계단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원명 스님은 “보살계를 받아 지니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다”고 강조했다. **신문철 대구지사장**

제1회 ‘보리수아래’ 북콘서트

일지암 암주 법인 스님 초청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대표 시각)는 4월 26일 무각사 로터스북카페에서 책임은 소모임 ‘보리수 아래 BOOK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에는 일지암 암주 법인 스님이 나서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풀었다. 스님은 출가의 인연과 출가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대중과 공유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단 정체성 정립에 의지처 될 터”

Interview 조동종 6세 종정 심월 스님



대한불교조동종은 4월 14일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수락산 도선사에서 6세 종정으로 취임한 심월 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심월 스님(사진)은 법어를 통해 “추운 눈속에서 봄바람이 부니,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향이로다”며 “세계 속의 한 송이 꽃이 피니 목조선의 향이요, 만 리의 흰 구름은 만 리 하늘을 떠가니 조동법 향기 또한 만 리를 가는구나”라고 말했다. 이어 심월 스님은 “대한불교조동종은 중창 이래 동산양계 스님의 기풍을 이어 한국불교에서 30여 년간 수행 종단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목조선맥을 선양하고 종단 중흥을 완수하며 조동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종도들의 확고한 교육불사를 통해 인재양

“교육불사 통한 인재양성과 목조선맥 선양에 힘쓰겠다”

성을 하는 데 큰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심월 스님은 “요즘같이 어렵고 혼탁한 사회에서 우리 불교가 지

진 중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자들이 본분에 충실해 모범이 되어 한다”며 “종단 스님들에게 법회와 교육을 통해 수행과 포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75년 백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심월 스님은 1983년 경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1984년 안성 용천사 주지를 거쳐, 1994년 조동종 종정 운과 스님에게 대덕법계를 품수했다. 종단의 주요 요직으로는 종정 사서실장(1996), 교육원장(1997), 포교원장(1999), 감찰부장(2000)을 거쳤으며, 제6대와 제7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동산양계선사(洞山良价禪師)를 종조(宗祖)로 모시고 있는 조동종은 양계선사의 자주성과 이연전철선사의 범성원융합 목조선풍(默照禪風)을 종풍으로 한다. 여기서 목조선은 좌선하는 곳에 반드시 깨달음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분당마사회, 한솔福 특화사업 지원 ‘한솔직업체험센터’에 700만원



한국마사회 분당지사는 4월 27일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에 ‘한솔직업체험센터’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분당마사회는 2011년부터 한솔사회복지관 특화사업에 후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여성 및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해왔다. **박익률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운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